

터주나라 터주꼴에
삼두구미엔 훈
사름도 아니고 구신도 아닌
백발노인이 살았습네다.
삼두구미가 각시가 죽어부난
흐처를 장만흘 궁량을
틀었습네다.
흐로는 삼두구미가
신산고질 도올르고 보니
삭다릴 흐는 낭꾼을
만나게 되였습네다.
이 낭꾼은 뜰만 싯을
들안 사는디
살림이 소못 여북흐였습네다.
삼두구미는 이 낭꾼신디 강
“어령훈 사름이
허락도 엇이 낭글 흐느냐”고
흐였습네다.
낭꾼은 뜰 시성제랑 사는디
살이가 어려우난
낭기라도 흐여당
입구입을 흐젠 흡네다고
흐였습네다.
삼두구미는 흐는 말이.
“정흐염건, 내 중매를
흐여줄커매
뜰을 부제집데레 푸는 게
어령흐우깬?
물었습네다.
낭꾼은 것도 좋은
일입네다.
대답을 흐였습네다.
낭꾼은 삼두구미를 모시고

집으로 누르오라.
금전을 하영 받고
큰뜰을 풀았습네다.
삼두구민 그 낭꾼의
큰뜰을 부인으로 들고
지 사는 산중으로
갔습네다.
삼두구미 부인은
간 보난
산중은 산중이라도
고대광실 높은 집에
잘 사는 집 곁았습네다.
삼두구미는
부인을 사랑으로
돌안 들어가고서
이녁 양착 다릴 빤 주멍.
무실 강 오는 새예 그걸
다 먹어사 혼댄 흐였습네다.
부인은 금착하고,
그 때사 후회되여도
흐여볼내기가 엊었습네다.
부인은 그 다릴
먹을 수도 엊고,
그력저력 시간만 보내는디.
무실 칸 삼두구미는 돌아올
때가 되여갔습네다.
부인은 그 다릴
마릿널을 들런 그 쏘곱에
곱쳤습네다.
그후 남편은 들어오면서
“나 다릴 어떻 흐였느냐?”
물었습네다.
“예. 문 먹었습네다.”
“게멘 내 시염삼아 볼키여.”
삼두구민 큰 소리로,
“나 다리야!”

호난,

마릿널 알로

“예.”

소리가 났습네다.

그영호난

삼두구미는 습시에 밴식이 되고

머리박은 싫에

꼴랭인 아홉은 훈

중성이 되였습네다.

그영하고 호는 말이.

“이 망흘 년,

누겔 씌기젠흐느냐?”

삼두구민 인정 수정 엇이

부인을 뜨려 죽여불었습네다.

삼두구미는 다시 백발노인으로

밴식을 호고

처가집으로 가서

셋년?라

성신디 돌아다주키엔 호연

돌안 오랐습네다.

삼두구민

셋년을 돌안 들어오란,

먼저번초록 호연

그는 말 안들으난 셋년도

또시 죽여비였습네다.

삼두구민 또 처가집에 간

이번은 말줏년을

또시 저번초록 돌안

오게 되였습네다.

삼두구민 말줏년?라

“느네 성넨 부제집으로

씨집 간 잘 사는디,

모릿날은 친정에

선신문안을 오젠 호는디

?정 올 물품이 하부난,

그걸 혼디 강 도와 도라.”

흐였습니다.

말중년은

고정이 진정으로

삼두구미광 훈디 질을

나샀습니다.

훈참을 걸어 들어가는데,

어떤 대궐같은 집안으로

인도를 흐는디.

쏘곱으론 무습고 흐여도

촘으멍 안트로 들어갔습니다.

집안으로 들어가도

사름이 흐나도 안보연,

말중년은

“계난 우리 성님은

어디 싯수광?” 흐난,

이 때사 삼두구민

“어지럽다, 준소리 말라.”

훈두왁을 흐였습니다.

말중년은

그 때사 속은 줄을 알고,

“이젠 이 놈을 달래여사

씰로구나”

생각흐였습니다.

말중년은 말을 흐되,

“계난, 어떤 흐 일이우꽈?

말을 골읍서 보져.

그는 말이사 아니들읍네까?”

흐여가난,

그젠 삼두구미는

이녁 양착 다릴 빤 주멍

“나, 훈 아흐렛 동안

무실 캉 올커매

그 수이에 이 걸 문 먹어.”

흐였습니다.

말중년은 말을 잘 들으쿠댄

흐멍.

“개난 영감님이

제일 좋은 일이

이거우꽝?”

호난

“난, 이 다릴 먹는 사름이

제일 좋아.”

호였습네다.

그영호난, 또시

“게멘 제일 궂어호는 건

뭣이우꽈?” 호난

“궁어호는 건

늘독새기광

동데레 범은 버드낭가지광

무쇳덩어리가

제일 궂어.”

호였수다.

“무사 그건 궂어호염쭈광?”

“그건 츄 츄 알아진다.”

그영호연 삼두구미가

모실카불고,

말줏년 혼체 집이서

울므로 날을 새단

생각끝에

장작불을 쇠질르고

그 다릴 문 술았습네다.

말자인 술단 남은 꽝이

손바닥만인 시난.

그걸 전대에 똘똘 몰안

뱃부기레 대연 감아두고,

독새기광 버드낭가지광

무쇳덩어릴 호여단.

곱져두었습네다.

그후 열를쳇 날은

묘시가 근당호여가난

삼두구미가 돌아왔습네다.

말줏년은 나산 반기멍

“영감님 오실 딜 지드렸습네다. 旱난

“나 다린 어떻 旱였느냐?” 旱연.

“예, 그것을 다 먹었습네다.”

“게멘, 내 확인을 旱여 보겠다.

나 다리야!”

이 소리에

말줏년 배에서

“예!”

旱는 소리가 나왔습네다.

삼두구미는 그제사

이녁 다리를 문 먹은 줄

알고, 안심旱게 되였습네다.

삼두구미는 말을 旱되,

“내 부인이 적실旱다.”

칭찬을 旱였습네다.

말줏년은 삼두구미?라.

“계난, 영감님 일름은

무엇입니까?”

“나 일름은 삼두구미라는

땅귀이다”

“경旱민 무사

독새기광 버드낭광

무쇳덩인 굳어집네까?”

“그것은 천귀가 땅일을

물어올 때

내가 다른 것들은

다 휘야잡아지여도,

독새기광 버드낭광

무쇠안틴 골아도랭 旱민,

독새긴

‘나는 눈도 코도 입도 귀도

엇이난 몰르키엥 마니 털곡,

동데레 벌은 버드낭가진

뻣뻣旱니, 훈번 후리민

스죽이 칭칭 자령

운신을 못旱곡,

무쇳덩어런 불에 지더도
아니카곡 빈통이 엊기로,
내가 조애를 부릴 수가
엇이난 궂어진다.”
또시 궂인 것 엇습네까?
“경^흐곡, 늘^독새기론
양지레 마쳐불민
까지영 문 든대겨지민
앞도 보지 못^흐곡
무쇳덩어리로도 마쳐불민
가심이 먹먹^흐기로
궁어지는 것 아니가.”
말줏년은 그 말이 털어지난
“영감님 머리에
니나 잡아드리쿠다.”
^흐연,
니잡는 것^ㅊ록 ^흐단,
얼룬
곱졌단 버드낭가지영
독새기영 무쇳덩어릴
내여놓멍.
“영감님, 이거 미싱거우꽝?
^흐여가난,
삼두구민 겁이 나고
대가린 싫에
꼴랭인 아옵으로 밴식^흐멍
뚱 찰찰 흘치멍
“이이구! 이거 치와불라
이거 재게 치와불라.”
손 ^ㄱ로 섞으멍
뒤테레 물러왓이멍
들을 딜 질리왓습네다.
말줏년은
“예? 이거 무신 말이우꽈?
나 이 걸로
영감님 말씸이 씀이멍

그짓이멍을 알아볼쿠다.”

흐멍

버드낭가지로 착착 부찌가난.

삼두구민 동펜데레

돌아나가난

말줏년은 독새기광 무쇳덩이로

양지영 가심이영

다락다락 마쳐부난

늘릇이 죽어갔습네다.

그제는 말줏년이 먹을 골안

붓으로 독새기에

천팽지팽을 씨연

삼두구미 족갱이에 좁져두고

방문을 율안 보난.

아무것도 엇언.

“설룬 성님아

원쉬 갚아시매 훈저 나옵서”

흐난,

“요 방에 싯저”

성님네 소리가 들련.

말줏년은 안방문을 율안 보난

성님넨 독훈 놈안티 죽언.

꽝만 술강 흐였습네다.

말줏년은 치맷통에

그 꽝들 문 줋어 담안

집으로 돌아오란

올래 밖이 모사두고,

아바님전 들어가고,

수실을 말을 흐니.

“아이구! 설룬 나 아가야,

가난이 죄로구나.”

칠성판을 장만하고

그 꽝들을 주근주근 줋어놓완

시신을 감장하고 두고

버드낭가질 아름 그득

준비하고

산중으로 올라간 보난.
삼두구미가 죽어가단.
이제 막 살아나젠 乎염구나.
말줏년광 아방은
버드낭가쟁이로
삼두구밀 백대를 뜨려 죽연
방앳혹에 놓안 빼산
그르 내연
허풍부름에 불렸습네다.
그법으로 금시상에
산을 철리흘 땐
시신을 백보 밖겼디 강 놓왕
성복젤 乎곡
철리터엔 득새기 시개에
무쇳덩어리 싯을 묻곡
흙을 덕경
버드낭가질 꼬조왕
삼두구미 땅귀 방처 乎는
법을 흡네다.

<한경면 고산리 여무 77세 이춘자님>

진성기, 『제주도 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pp.646-650.